



## ■ 월드컵 단신

## 방 배정도 과학...영 표-중국 '한방에'

'방 배정도 과학이다'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 개막을 보들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전지훈련 캠프를 치킨 아드보카트호 태극전사 23명들이 '맞춤형' 방 배정을 통해 훈련성과의 극대화에 나섰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글래스고에 도착해 숙소인 글래스고 헬튼호텔에 여장을 풀고 본격적인 훈련 채비에 들어갔다.

집을 풀기에 앞서 선수들은 코칭스태프가 미리 정해준 '작전기(?)'를 통해 스코틀랜드에서 함께 동고동락할 팀메이트의 명단을 발표했다.

우선 대표팀의 좌우 윙백을 맡는 이영표(토론토)와 송종국(수원)은 '한방' 시켰고 중앙 수비수를 맡는 최진철(전북)과 김진규(이와타)도 같은 방에 넣었다.

또 골키퍼 김용대(성남)와 김영광(전

남)이 함께 방을 쓰게 됐고, 수비수 김영철(성남)과 김동진(서울)이 짝을 이뤘다.

하지만 공격수들은 재미있게도 대부분 미드필더와 짝을 이룬 게 이번 전지 훈련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윌 토마스(워스부르크)은 미드필더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과 짝을 이뤘고, 윙포워드 이천수(울산)는 같은 구단 소속의 미드필더 이호와 같은 방에 배정됐다.

또 조재진(시미즈)은 '진공청소기' 김남일(전남)과 짝이 됐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포워드를 오가는 '신형엔진'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경기호(광주)와 호흡을 맞추게 됐다. 이밖에 수비수 김상식(성남)은 소속 팀 후배이자 수비형 미드필더인 김두현(성남)의 시중(?)을 받게 됐고, 선수단 숫자가 줄 수인 덕택에 이운재는 짝이 맞지 않아 본의 아니게 독방을 쓰게 됐다.

## 안정환 "우리는 4년전보다 더 강하다"

"우리는 4년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물론 해외 원정의 부담을 안고 있지만 2002년에 못지 않은 결과를 안고 돌아 가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안정환(30·워스부르크)이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1차 베이스 캠프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도착하자마자 선수들 모두 '개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자고 제안했다.

안정환은 글래스고 공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선수들 개인이 알아서 해야만 한다. 물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부상"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

는 "지금부터는 선수들 모두가 개인의 몸이 아니다. 팀의 일원이다. 개인인이 신경을 바짝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팀에 해가 된다"며 선·후배 동료 사이에서 풍겨나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3일 세네갈전과 26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전에 연속 선발 원톱으로 출격했던 안정환은 "무엇보다 국내에서 마지막 평가전을 이기고 와서 편한 마음으로 이 곳까지 날아올 수 있었다.

아직 결전지인 독일에 입성한 것은 아니지만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확 든다"고 했다.

## 토고 수석코치 "본선 진출로도 만족"

토고 대표팀 피트 함베르크 수석코치가 16강 진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네덜란드 출신인 함베르크 코치는 28일(한국시간) 자국 신문 '알레메네 디 호블라드'지(紙)와 인터뷰에서 "지금 토고 국민 모두는 16강 진출을 갈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험난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고는 이번 월드컵 본선에 사상 처음으로 진출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6강에 오르지 못해도 서운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오토 피스터 감독이 본격적으로 선수를 소집해 훈련에 들어간 지



28일 광주구동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 이미트배 2006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신세계와 국민은행의 경기에서 국민은행의 스테파노바(원쪽)가 신세계 미셀캠벨과의 리바운드 다툼에서 불을 차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신세계 홈 개막전 완패

## 국민銀에 72-85로 져



광주 신세계가 여름리그 홈 개막전에서 국민은행에 완패했다.

신세계는 28일 광주구동체육관에

서 열린 신세계 이미트배 여자프로농구 2006 여름리그 2차전에서 국민은행에 72-85(13-24, 19-25, 19-12, 21-24)로 패했다.

이로써 신세계는 1승1패가 되 구리 금호

생명과 공동 3위가 됐다.

신세계는 이날 지난 24일 우리은행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25득점을 올린 '간판 슈터'

김정은(19)의 부진과 골밀싸움에서 밀려

개막전 승리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신세계는 1쿼터부터 골밑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주도권 싸움에서 일찌감치 떨어졌다. 1.2쿼터에서 17점을 뛰진 신세계는 3쿼터 들어 캠벨의 고문분투와 양정우의 3점슛이 터지며 막판 대역전을 노렸으나 경기 초반 벌어진 접수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9일(월)

▲프로야구 2군리그<경찰청-LG>(13:00·MBC ESPN)

## KIA 3연승...4위 복귀

## 그레이 호투·팀타선 폭발 SK에 8-1 승리



삼성 PAV 2006 프로야구

KIA는 28일 인천 구장에서 열린 2006 삼성PAV 프로야구 SK전에서 선발 그레이 이 심어의 호투와 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8-1로 승리했다.

그레이이는 8이닝동안 5안타, 1실점, 7삼진의 눈부신 투구로 시즌 3승째를 올렸다.

SK선발 윤길현의 구위에 눌려 6회까지 2안타 무득점으로 고전하던 KIA는 7회 이후 화끈한 팀 타선이 폭발, SK와의 4위 순위 바꿈에 성공했다.

KIA는 7회 1사 1.3루에서 대타 심재희의 우전안타로 선취점을 뽑은 뒤 계속된 1사 1

3루에서 김상훈의 연속안타로 2-0으로 달아났다.

8회에 김민철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한 KIA는 9회 주자1인순하며 대거 5점을 뽑아내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승부를 마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프로야구 중간순위 (28일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개입차	연속
1	현대	26	14	0	0.650	-	2승
2	한화	25	14	1	0.641	0.5	1승
3	삼성	23	15	1	0.605	2.0	3승
4	KIA	19	18	1	0.514	5.5	3승
5	SK	20	20	0	0.500	6.0	2패
6	두산	15	22	2	0.405	9.5	2패
7	LG	14	25	1	0.359	11.5	3패
8	롯데	12	26	0	0.316	13.0	1패

## 광주 수창초등 우승

## KIA타이거즈가 야구대회

광주 수창초등학교가 제4회 KIA타이거즈가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수창초등은 지난 27일 전주 종합경기

장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군산 남초교를 13-3으로 대파했다.

지난 26일 열린 준결승에서 군산신풍 초등학교가 18-2로 가볍게 꺾고 결승에 오른 수창초등은 이날 투타의 완벽한 조화를 보이며 10점차로 대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무등기 고교야구 대진 일정 확정

## 본사 주최...내달 12일 개막

6월 12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제1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대표자회의가 지난 26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26개 고교팀 대표자들이 모여 대회 출전에 따른 주의사항과 경기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추

첨을 통해 대진 일정을 확정지었다.

광주일보사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다음 달 12~19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2003·2004년 무등기 2연패에 빛나는 광주일고와 지난해 무등기 우승팀 천안 북일고 등을 비롯해 지역 예선을 거친 전국 26개 팀이 출전해 우승기를 놓고 승부를 펼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고의 행운 자리!  
최고의 화원 자리!  
최고의 음식점 자리!  
최고의 PC 판자 자리!  
최고의 패션문화 자리!

062.654.8844

전국은 바다와 산에 빠졌다!

최하는 바다 2,000원  
성마를 바라보자 1,500원  
대표 사령탑 1,500원